

방산업체의 국제교류



吳世哲 (주) 서울엔지니어링 사장

한국 방위산업 진흥회 주도로 7, 8년 전 부터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이 미국, 프랑스를 비롯하여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말레이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각 방산업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6·25이후 우리와 특별한 혈맹관계를 맺고있는 미국과는 87년부터 서로 양국을 오가며, 한미방산회의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상호간의 관심사를 토의해오고 있으며, 2~3년전부터는 프랑스와도 이런 형태의 교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과는 방산물자 교류는 없으나 지역안보의 상호 협조차원에서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방산업체 방문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문단이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등에도 다녀온바 있습니다.

필자는 교류의 초기단계부터 방문단의 기미(驥尾)에서 여러번의 회의와 수십차례의 공장 방문을 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기에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느낀 소감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류의 의의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오랜기간 우리나라에서 소요되는 각종 병기를 도맡아 공급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군수관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한국의 방산업체와도 수시로 접촉하고 있어, 양국의 방산업체가 87년에 처음 회합을 갖기 시작 할 당시 미국측은 회의의 필요성 보다는 긴밀한 유대를 확인하기 위한 의례적인면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점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도 대동소이(大同小異) 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매년 정례회의를 거듭해 갈수록 회의는 눈에 띄게 진지해졌고, 토론은 열기를 더해 갔습니다.

미국측 방산업체의 제일 큰 이슈는 항상 대한(對韓) 무기판매시 야기되는 절충교역의무(off-set)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업체의 불만은 미국측의 인색한 기술이전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후 미국은 자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무기를 수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관해서는 완벽에 가까운 이론과 경험을 갖고 있어, 냉전 대결의 구도가 분명했던 6~7년전 까지는 우리나라에 방산물자를 독점 공급하는데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산권의 붕괴가 시작되고, 이데올로기 대결의 경향이 약화되고, 세계적인 군비축소가 뒤따르면서, 세계 병기시장에는 시장경제

의 원리가 어느때 보다 강하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라 할지라도 예외없이 새로운 판매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그동안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제조 및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방산분야에서도 보다 많은 부분을 질 좋고 값이 저렴한 국산으로 대치하고, 나아가서는 장차 해외 시장까지도 바라보겠다는 계획아래 이러한 국제 여건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산업에서 자유 세계 제2위인 프랑스도 수년전부터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우리의 입장은 매우 유리해지고 있는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미국과 프랑스의 방산업체들과 회의와 상호방문을 해오면서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모임의 기본 목적인 상호간의 이해에는 실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측 방산업체는 한국시장에서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측의 불만을 대신해서 미국의 국방부나 가까운 정치인에게 호소하고 설득하여 그들의 생각을 고쳐나가는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요란하던 절충교역에 관한 미국측의 불만도 오랜시간의 허심탄회(虛心坦懷)한 토론과, 때로는 미국측 견해와 요구사항을 우리나라 국방부의 각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설명함으로써 많은 이해와 공감을 갖기에 이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와도 흡사한 체를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바로 이런것이 만간차원 교류의 진정한 의의와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장방문에서 얻는 것들

미국이나 프랑스등의 방산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홍보나 소개를 위해서 자신들의 공장을 최대한 개방하여 성의있는 안내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최신개발제품이나 첨단기술의 핵심부분은 빼고 보여주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공장방문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미국과 프랑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항공기, 유도병기, 지상장비 등의 제조업체외에도 반도체나 전자, 각종기계제품, 화학제품, 주단조 심지어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하이테크 분야의 크고작은 산업체를 두루 견학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문을 통하여 참으로 귀중하고 많은 견문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특히 먼저 눈에 띈것은 어느 업체에 가더라도 그들의 빈틈없는 정리정돈과 QA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일부 특정기업에서 이와 흡사한 IS9000의 품질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나, 그 사람들은 몇십년전부터 엄격히 규정된 공정에 따라, 마치 순진한 국민학생과 같이 또박또박 작업을 행하면서 그 방대한 검사서에 검사한 그대로를 성실하게 기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질보증 서류가 얼마나 많은 양인가 하는 것은 제품에 따라서는 서류의 무게가 제품의 몇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하니, 성질 급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지루하고 불필요하게 보일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런것을 목격할때마다 우주항공산업등 완전무결함을 요구하는 영역에서는 이들처럼 유통성을 부리지 않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치 수도자 같은 작업자들이 꼭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얼마전 세계 첨단의 프랑스 전자 시스템 공장 설계실에서 히피모양의 조금은 기묘한 인상의 젊은이들이 두꺼운 유리로 차단된 조용한 느낌의 큰방에서 각종 컴퓨터기기들을 말없이 응시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동행한 한국의 전자 회사 임원이 『이와같은 첨단의 소프트웨어는 저렇게 규범이나 기성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젊은이들에 의해서만 발달할수 있는데, 묘한것은 이 기술이 순전히 사람의 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지, 기술발전정도가 그 사회의 民度の 수준과 일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흥미로운 얘기라고 느껴졌습니다. 하기가 우리나라의 공업발전도 70~80년 대에는 경이적인 속도로 발전해서 곧 선진국이 될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성과 합리적인 사고등이 뒤따르지 못했던 탓에 최근 5,6년동안 우리는 갈등과 혼란이 사회를 뒤흔들어, 더이상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것을 보면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회사들은 대개가 민수분야를 겸하고 있는 세계 최첨단의 유명한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렇수밖에 없는것이 최신 병기의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 항공, 기계 그리고 소재분야등에서도 최고 수준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사람으로서 이런곳을

자주 방문해서 소상한 회사 브리핑과, 많은 팜플렛 그리고 친절한 공장안내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풋내기 화가가 세계적인 거장의 초청을 받아 그들의 아뜨리에를 구경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여러분야의 임원들과 한팀이 되어 하이테크 산업을 포함한 여러업종을 두루 견학할수 있다는 것은 좀체로 바랄수 없는 행운이었습니다.

미래산업의 주역을 이루고 있는 세계정상의 회사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알수 있게되고, 그들의 기술정도나 설비를 직접보고 듣는 기회를 자주 가질수 있는 경영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문자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울러 이에 수반되는 책임도 통감하곤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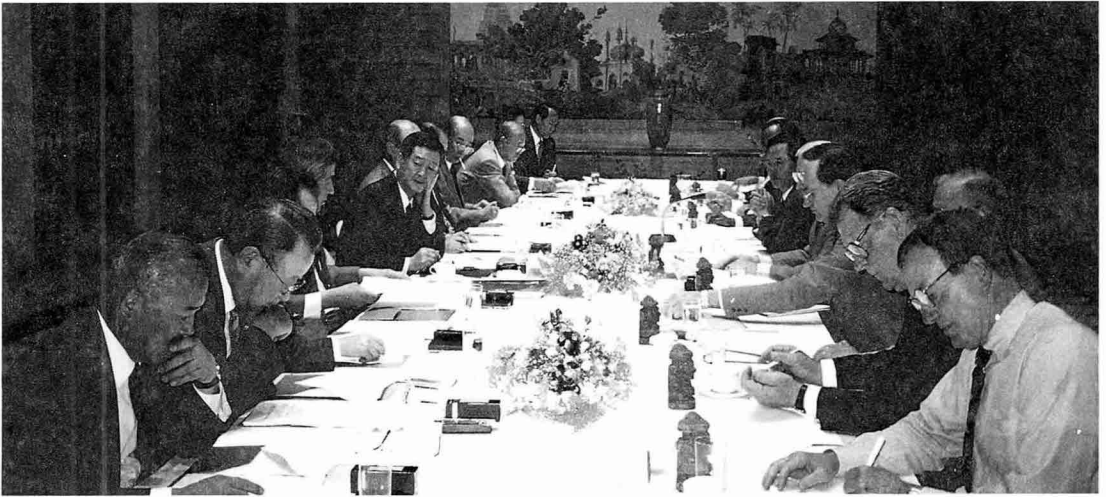
회의와 파티

이국땅에서 하루종일 회의를 하고나면 저녁에 어김없이 따라붙는것이 파티라는 것입니다. 시차극복도 채 되지않아 정신이 몽롱한터라 제발 어디가서 김치에다 설농탕이나 한그릇 먹고와서 일찍 쉬고만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기가 우리도 외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저녁에는 접대를 해야 하는것은 다름바 없습니다.

다만 파티는 우리식의 저녁식사나 연회와는 거리가 멀어 익숙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디너 파티이면 테이블 매너에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지만, 그보다도 주위 사람과 영어로 더듬거려야 하는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습에서 살아온 서양사람들은 무슨 할 이야기가 그리도 많고 재미나는지, 먹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몇배나 더 많아 우리가 아무리 빨리 접시를 비우고 기다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테이블의 마지막 사람이 접시를 비워야 다음 코스의 음식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디너가 2~3시간은 족히 걸리게 됩니다.

각테일파티의 경우에는 좀 더 어정쩡해집니다. 먹을만한 것도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뿐 아니라, 한국 양반의 체면에 선채로 집어 먹는 것이 별로 마음 내키지 않아 무난하게 양주잔만 손에 들고 그쪽 사람들과 뺨둘러서서 격식을 차려 보지만, 앉았을때보다 신장의 차이는 더 두드러지고 평이한 영어로 말할만한 적당한 화제는 좀체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대개가 하루 아니면 길어야 이틀이니 우리가 그들과 좀더 가깝게 교분을 쌓기 위해서는 싫건 좋건 이 「파티」라는 것을 십분 활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서양사람들은 각테일이건 디너파티이건간에 음식물은 약세사리 정도의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파티의 성패는 참석자 상호간에 얼마만큼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고 즐거웠느냐에 결정이 되는 것이라니, 손님을 초대하면 음식에 신경을 주로 쓰는 우리와는 파티의 개념자체가 다르다 하겠습니까.

『당신네들이 한국말을 못하니 내가 불편하지만 당신나라말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부지런히 수련을 쌓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티문화에도 차차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이런 경험들은 돈주고도 살수 없는 것으로 덕분에 바이어등 외국과의 관계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바라며

이 지면을 빌어 우리 방산업체에 이와같은 값진 기회를 갖게 하기위해 오랜세월 심혈을 기울여온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동안의 국제교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모임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긍지를 느끼고 있는 것은, 오랜기간 동안 여러번의 국제간 회의나 여행에서 모든 회원이 남다른 자제력과 훌륭한 기품으로 시종하여, 우리나라의 단체운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낯뜨거운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산업체는 세계 정상기업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나, 해외 우방과의 긴밀한 우의를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상호간의 교류가 꾸준히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국제간의 만남의 장을 자기발전의 기회로 십분 활용하여, 앞으로도 모든 방산업체와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